

‘역도 여제’ 장미란도 못한 기록 고흥 출신 19세 신록이 해냈다

세계선수권 인상·용상·합계 모두 1위...한국 역도 사상 첫 금 3 독식

고흥 출신 신록(19·고양시청)이 대한민국 역도사를 개척했다. 신록은 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21 세계역도선수권 남자 61kg급 경기에서 인상 132kg, 용상 156kg, 합계 288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1위에 올랐다. 한국 역도 선수가 세계선수권 단일대회에서 인상, 용상, 합계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낸 것은 신록이 처음이다. ‘역도 여제’ 장미란이 2005, 2006, 2007,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4회 연속 합계 우승의 대업을 일궈냈지만, 이 기간에도 인상 부문은 다른 선수에게 1위를 내줬다. ‘종합 우승’을 의미하는 합계 부문에서 한국 선수가 1위를 차지한 건, 2017년 69kg급 원정식 이후 4년 만이다. 신록은 인상 131kg, 용상 155kg, 합계 286kg을 든 소타 미슈벨리제(27·조지아)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 금메달 3개를 모두 손에 넣었다. 이날 신록은 인상에서 1차 127kg, 2차 130kg, 3

차 시기 132kg에 연거푸 성공했다. 신록이 기록한 132kg은 이 체급 인상 한국기록이다. 국제역도연맹(IWF)은 2018년 11월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부터 새로운 체급 체계를 만들었고, 세계기준기록을 발표했다. 대한역도연맹도 한국기준기록표를 작성했고, 한국 남자 61kg급 인상 한국기록을 132kg으로 정했다. 신록은 한국 61kg급 선수 중 처음으로 인상 132kg을 들며, 세계선수권대회 첫 번째 금맥을 깬다. 용상 1차 시기에서 156kg을 들지 못한 신록은 2차 시기에서는 156kg을 번쩍 들었다. 자신이 보유한 용상 한국 기록 164kg을 시도한 3차 시기에서는 바벨을 놓쳤다. 그러나 미슈벨리제가 3차 시기에서 160kg에 실패해 신록이 사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형 신비(21·완도군청)의 권유로 바벨을 들게된 신록은 고흥중 3학년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고흥고 1학년 때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인상

108kg, 용상 144kg(대회신기록), 합계 252kg)에서 3관왕(56kg급)을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다. 청소년 국가대표로도 선발돼 2018 아시아유소년역도선수권대회(4위), 서천 2018 한·중·일 국제친선역도경기대회(1위·인상 108kg, 용상 137kg, 합계 245kg) 등에 출전했다. 신록에게 운이 따른 건 사실이다. 이번 대회에는 역도 최강국 중국과 강호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다. 이날 신록의 기록은 올해 7월 25일에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 61kg급 메달리스트 기록과도 격차가 있다. 신록의 다음 목표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년 파리올림픽 메달 획득이다. 여자 55kg급 함은지(24·원주시청)는 용상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함은지는 인상에서 80kg에 그쳐 16위로 처졌지만, 용상에서는 114kg을 들어 2위를 차지했다. 인상에서의 부진으로 합계(194kg)에서는 6위에 머물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신록이 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21 세계역도선수권 남자 61kg급 경기에서 바벨을 들고 있다. 이날 신록은 인상 132kg, 용상 156kg, 합계 288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이상호, 한국 선수 첫 스노보드 월드컵 우승

후반 뒷심 발휘하며 대역전 내년 베이징올림픽 금 기대

‘배추 보이’ 이상호(26·하이원)가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상호는 11일 러시아 반노예에서 열린 2021-2022 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알파인 평행 대회 결승에서 슈테판 바우마이스터(독일)를 꺾고 우승했다. 한국 선수가 FIS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이상호가 처음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 대회 은메달리스트 이상호는 FIS 월드컵에서 그동안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상호가 FIS 월드컵 메달을 따낸 것은 2019년 12월 이탈리아 대회 준우승 이후 이번이 2년 만이다. 스노보드 알파인은 말 그대로 스노보드로 스피드를 겨루는 종목으로 예선을 통과한 16명의 선수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일대일 맞대결을 벌여 우승자를 정하는 종목이다. 두 명의 스노보드 선수가 나란히 내려온다고 해서 ‘쌍행’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62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 예선을 2위로 통과한 이상호는 16강에서 미할 노바치크(폴란드)를 0.29초 차로 제치고 8강에 안착했다. 준준결승에서 만난 국가대표 동료 김삼겸(32·하이원)이 완주에 실패, 4강으로 순항한 이상호는 미르코 펠리체티(이탈리아)를 만나 역시 상대 완주 실패로 승리했다. 결승 상대 바우마이스터는 2019년 세계선수권 평행 회전과 평행 대회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선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월드컵에서 한 번씩 우승했고, 2020년에는 월드컵 단체전에서 두 번 금메달을 획득한 유럽의 강호다.



‘배추 보이’ 이상호(26·하이원)가 11일 러시아 반노예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리스트 이상호(가운데), 왼쪽은 2위 바우마이스터, 오른쪽은 3위 소볼레프. /연합뉴스

그러나 이상호는 결승에서 바우마이스터를 따돌리고 한국 선수 최초의 FIS 월드컵 금메달 패거리를 이뤘다. 초반 출발에서 살짝 뒤로 처져 바우마이스터와 차이가 0.45초까지 벌어졌던 이상호는 후반 뒷심을 발휘, 마지막 5개 기문을 남기고 역전에 성공했고 패색이 짙어진 바우마이스터가 이후 리운 포기했다. 이상호는 스키 종목에서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고, 월드컵에서도 2017년 3월 터키 대회에서 은메달로 최초의 한국인 메달리스트

가 된 선수다. 이번에 FIS 월드컵 한국인 금메달 ‘1호’ 기록도 이상호 차지가 됐다. 이상호는 2019년 12월 이탈리아 대회 은메달 이후 월드컵에서 메달이 없었지만 올림픽을 앞둔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망도 밝았다. ‘배추 보이’는 강원도 사북 출신인 이상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령지 배추밭을 개량한 썰매장에서 처음 스노보드를 탔다는 이유로 붙은 별명이다. /연합뉴스

빙속 정재원·이승훈 베이징올림픽 출전권 확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이승훈(IHQ)과 정재원(서울시청)이 나란히 2022 베이징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정재원은 12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21-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매스타트에서 7분46초680의 기록으로 6위, 이승훈은 7분46초900의 기록으로 11위 자리에 올랐다. 정재원은 월드컵 랭킹포인트 76점을 추가해 총점 376점으로 세계랭킹 4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승훈은 60점을 획득, 266점으로 세계랭킹 5위를 기록했다. 두 선수는 월드컵 1-4차 대회 결과로 주어지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베이징올림픽 매스타트 출전권은 국제대회에

서 기준 기록(남자 1500m 1분57초50)을 넘은 선수 중 월드컵 매스타트 랭킹 상위 24명에게 주어진다. 이승훈과 정재원은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당시 정재원은 이승훈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며 이승훈이 체력을 비축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승훈은 레이스 막판 속력을 올려 금메달을 차지했다. 당시 두 선수의 레이스는 선배의 성적을 위해 후배가 희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열린 여자 500m에서는 김민선(의정부시청)이 37초 269의 개인기록을 세우며 8위를 차지했다. 김민선은 월드컵 랭킹 9위 자리에 오르며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무난하게 획득했다. /연합뉴스

스케이트보드·스포츠클라이밍·서핑 2028 LA올림픽서 정식 종목 가능성

복싱·역도·근대5종은 제외될 수도 전 세계 젊은 층의 사랑을 받는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서핑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0일(한국시간)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집행위원회를 열어 스케이트보드 등 3개 종목을 포함한 28개 종목을 2028 LA 올림픽 기조 종목으로 2022년 2월 열리는 총회 때 제안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장 뜨는’ 3개 종목과 달리 복싱, 역도, 근대 5종 3개 종목은 기조 종목에서 제외돼 올림픽에서 향후 존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중 복싱과 역도는 부패, 재정난, 판정 추문, 도핑 문제 등을 개혁하지 않으면 올림픽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IOC의 경고를 받은 종목이다. 근대 5종은 승마를 제외하는 문제를 매듭지어야

올림픽 종목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다. LA 올림픽 정식 종목은 IOC가 승인한 기조 종목과 LA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시한 추가 종목을 합쳐 구성된다. 이에 따라 기조 제안 종목으로 한자리를 빼잔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서핑 등 신종 종목은 정식 종목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3개 종목은 올해 치러진 2020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데뷔했고 2024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다. 로이터 통신은 3개 종목이 도쿄올림픽에서 전 세계 젊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대성공을 거뒀다고 전했다. AP 통신 보도를 보면, 3개 종목은 데뷔전에서 큰 성공을 거둬 종목별로 지급하는 올림픽 계계권 수입 중 1500만달러 이상씩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정식 종목이 된 태권도도 LA 올림픽 28개 기조 제안 종목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연애 빠진 로맨스
- 2관 유채이탈자
- 3관 유채이탈자, 돈 룩업,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 4관 돈 룩업
- 5관 연애 빠진 로맨스
- 6관 유채이탈자
- 9관 엔칸토: 마법의 세계, 리슨
- 7관 씨네캐플 마이 뉴욕 다이어리, 돈 룩업, 리슨, 장르만 로맨스
- 8관 씨네캐플 둔,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이터널스, 라스트 나잇 인 쇼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21 ACC 송년음악회
일시 : 2021.12.24.(금)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 062-524-5086

GAC기회공연 포커스
어린이 무용 <루돌프>
일시 : 2021.12.19.(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